

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는 왕권의 시작과 흥망성쇠를 기록하고 있다. 히브리성서에서는 각 책의 상하를 구분하지 않으며, 칠십인역은 왕국 1,2,3,4 로 두 책을 함께 묶어 이해한다.

#### A. 내용

- 사무엘의 출생과 성장(사무엘상 1-3 장). 나실인(1:11; 2:11). 제사장으로(1:35), 선지자로(3:20; 9:9, 19), 사사로(7:6, 15-17) 활동.
- 언약궤/법궤/하나님(여호와)의 궤 이야기(사무엘상 4-6 장)
  - 법궤와 신의 임재. 본래 법궤는 모세(혹은 야훼)가 새긴 돌판을 저장하기 위한 수단(신 10:1-5).
  - 빼앗긴 법궤는 아스돗의 다곤신전, 에그론, 벵세메스 등을 거쳐 기랴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안착(7:1). 후에 다윗에게로 돌아감(삼하 6 장)=> 사울왕 생전에는 하나님의 궤/임재가 사울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신학적 암시.
- 지도자 변화=> 모세 이후 신명기 사가가 당면한 문제: 누가 이스라엘을 이끌 것인가?
  - 마지막 사사, 사무엘(7 장). 사무엘의 아들들로 사사를 삼음(8:1)=> 문제제기.
  - 왕권에 대한 견해(8-12 장)
    - ⇒ negative.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(사무엘상 8 장). “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”(8:7).
    - ⇒ positive. (삼상 9:1-10:16). 꽃미남(9:2). 내가 한 사람을 보내리니 그를 기름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(9:16). Cf. 사울에게 신이 내리고 예언(10:6,11)=> 삼상 10:7-8
    - ⇒ negative. (삼상 10:17-27). 너희가 ...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왕을 구한다(10:19). 사울이 부끄러움(?)으로 짐짝들 사이에 숨고(10:22), 백성들은 사울을 멸시(10:27).
    - ⇒ positive. (사무엘서 11 장). 길르앗 야베스와 사울의 관계(사사기 21 장 => 삼상 31:11-13). 길갈에서 사울의 왕권을 재확인.
    - ⇒ negative. 사무엘의 은퇴설교(사무엘하 12 장). 여호와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왕을 구했다(삼상 12:12); 왕을 구한 죄가 크다(삼상 12:17).
- 사울의 등장과 멸망(사무엘 13-15 장)
  - 사울은 사사처럼 charismatic leader(삼상 12:5-6 ⇨ 샬 14:6)
  - 등장만큼이나 빠르게 사라짐. 왜?
    - ⇒ 불순종(삼상 13:13-14). 과연 불순종일까? 특히 14 절은 편집자의 의도로 보임.
      - ☞ 삼상 10:7-8.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(lit., 네 손이 만나는 대로 행하라=> 하고 싶은대로 하라).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. 길갈로 가는 이유는?
      - ☞ 삼상 11:14-15. 삼상 10:8 절의 성취. 곧, 사울을 왕으로 추대 후 화목제를 드림. 아마도 사람들이 사울을 멸시(10:27)한 이유로 재신임.
    - ⇒ 사무엘상 15 장은 대표적인 신명기 사가의 신학으로 종교적 말살/파괴행위(herem)와 순종을 말한다. Cf. 여호수아 7 장, 아간 이야기=> “왕보다 낫은 이웃에게 왕권이양”(삼상 15:28).
    - ⇒ 두 사건 모두 다윗의 등장을 염두에 둬.
- 다윗의 등장(사무엘 16 장--)
  - 여호아의 신이 사울에서 다윗으로 옮김(16:1, 14).
  - 이 후부터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님.

#### B. 사울과 다윗: 두 번에 걸쳐 반복되는 이야기들

- 사울이 두 번 왕위 즉위(9:16-10:1; 10:17-27)
- 사울이 두 번 정죄
  - ⇒ 제사를 드러서(사무엘상 13 장)
  - ⇒ 하나님의 명을 순종치 않아서(사무엘하 15 장)
- 다윗이 사울 앞에 나타남
  - ⇒ 연주자로서(삼상 16:14-23). 사울이 다윗을 자기의 병기 든 자로 삼음(16:21).

- ⇒ 용사로서(사무엘하 17 장). "사울이 다윗에게 묻되,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?"(삼상 17:58)
- 골리앗을 누가 죽였나?
  - ⇒ 다윗(삼상 17:50)
  - ⇒ 엘하난(삼하 21:19). 개역(그리고 개정개역)은 '골리앗의 아우'라 표기.
- 사울은 다윗을 두 번 죽이려하고(18:11; 19:10), 다윗은 사울을 두 번 살려준다(엔게디, 24:3-7; 하길라산, 26:9-11). 그 외 사울이 선지자 중에서 예언하는 이야기(10:9-13; 19:19-24)

C. 신명기사가 신학으로 읽는 다윗 이야기

- 사무엘서는 사울의 멸망과 다윗의 등극에 초점. 헤르쯔베르그(Hans Wilhelm Hertzberg)는 "다윗은 흥하여야겠고, 사울은 망하여야 하리라"(OTL, 1 & 2 Sam, 241)고 주석하고 있다.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종이지 절대로 반역자(usurper)가 아니라는 주장(사무엘상 16 장).
- 그러나 사무엘서에는 다윗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그대로 남아있다.
  - ⇒ 사울 왕 재임 시,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움(사무엘상 16 장). 엄연한 반역 행위.
  - ⇒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 사람 아기스를 섬기며, 이스라엘을 대적해 싸우려 함(사무엘상 27-29 장). 특히 삼상 29:8 참조.
  - ⇒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의 자객이 그 머리를 들고 다윗왕 앞에 나타남(삼하 4:8). (사전에 무슨 이야기가 오갔나?).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...

결론

- ✚ 다윗의 왕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랐다는 주장(16 장). 그렇게 말해야하는 이유는?
- ✚ 전반적으로 왕권에 대해 부정적 입장.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, 그의 섭섭한 감정이 은퇴연설(12 장)과 이어진 은둔생활(15:35-16:1)에 잘 나타나 있다.

-----  
생각해 보기

1.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. 사무엘(Samuel)의 뜻은 "하느님이 듣다"로 이해할 수 있다(cf. 삼상 1:20). 삼상 1:28 에서, 사무엘이 하느님(YHWH) 앞에 드린 바 되었다(הָיָה שְׂמוֹנִי לַיהוָה, => Saul). 문학적 표현으로, 사무엘이 사울이다.
2.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은 둘 다 자식들을 후계자로 정하지만, 이들은 그 직위남용으로 맡은 바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(징계받아) 죽는다. 아버지의 선택이 문제일까? 자식들의 윤리/성정이 문제일까?